

이규호 좌장께서 특구의 위기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대임 위원장님께서 배포하신 자료에 ‘삼성에서 배우자’는 슬로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의 경우이지, 특구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누라와 자식빼고 다 바꾸자.’ 라는 말은 계획의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계획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오류와 반성을 토대로 하지 않은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의 성공 전례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이 시점에서 반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특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창조경제 혹은 전 정권에서 얘기했던 또 다른 정치지향적 정책을 전면내 내세우다보면 특구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방향성과 지속성을 잃지 않아야 특구가 생존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덕특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덕특구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2005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에 특구의 목표는 ‘세계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 이었습니다. 아까 강 위원장님께서도 2015년에 점검은 하겠지만 그 목표달성이 불투명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 부합하는 모델을 설정하지 못했거나, 잘못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10년 안에 실리콘 벨리를 따라가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정작 역량에 대한 냉철한 자기분석이 없다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네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이자 특성화에 대한 고민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설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대덕특구가 카이스트와 충남대 인근 지역의 인재들만으로 글로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실천지침에 있어서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네 번째, 융복합의 개념을 광역적으로 생각하셔야합니다. 옆집과의 교류가 융복합

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의미는 자신의 영역을 과감히 탈피하는 것입니다.